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3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19. 사데 교회

2013. 05. 12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두아디라 교회의 기별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데 교회에 대한 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지고 함께 잘 들으시고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3:1~6] 사데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2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3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4 그러나 사데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5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6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 목사님, 지난 시간에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를 다 살펴본 것 같습니다만, 혹시 두아디라에 대하여 보텔 말씀이 있으면 먼저 하시지요.

답: 뭐, 특별히 보텔 말은 없습니다만, 그 당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하여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표상으로서 두아디라 교회 시대는 기원 538년부터 늦게는 1789년까지고 가깝게는 1517년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버가모 교회 시대부터 교회가 정권과 밀착하면서 서서히 교권이 형성되어서 교회가 정권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말하면서 이미 말한 대로 발락의 역할을 한 사람은 콘스탄틴 황제이고 발람의 역할을 한 사람들은 당시 황제와 친밀했던 교부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이사랴의 유세비우스와 황자의 가정교사인 락탄티우스입니다. 321년 3월 21일에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 휴업령을 내렸는데, 이것도 이 두 사람이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황제는 이들을 좋아했고 마침내 칙령을 받고 명목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기념으로 황제는 교회에 선물을 하기를 원했는데, 교부들의 제안으로 성경 사본 50권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시내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이 그 50권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추측들을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좋은 유산이지요. 그러는 중에 제국로마가 헤룰리와 동고트 족에 의하여 마침내 538년에 종말을 고하자, 정치 공백 상태가 된 로마에 아주 자연스럽게 로마 감독이 로마를 추스르면서 정치 일선에 등장하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 레오 1세 같은 사람이, 교권을 확장하는데 일등 공신이 되기도 했습니다. 백과사전에서 레오 1세에 대하여 찾아보면, “레오 1세는 재위기간 중 훈족과 반달족의 침공을

받을 때 용감한 태도로 로마를 구출하여 교황의 위엄과 권위를 크게 드러낸 것으로도 유명하다. 당시 게르만 족의 대이동 이후 나약해질 대로 나약해진 서로마 제국은 사방에서 봉기하는 외세의 침공 앞에서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할 뿐이었다.

452년 훈족이 전 유럽을 유린하고 드디어 로마에까지 당도하자 민심은 극심하게 동요되었고, 결국 서로마 황제 발렌티니아누스 3세는 레오 1세에게 강화 중재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레오 1세는 황제의 요청을 받아들여 무기나 군대도 없이 성직자로서의 의장만 갖추고 로마 시외로 나가 만토바에서 훈족의 왕 아틸라와 직접 회담을 벌인 끝에 화평을 얻어내고 훈족의 군대를 순순히 퇴각시켰다. 이리하여 로마는 멸망 직전에서 가까스로 구출될 수 있었다. 《황금전설》에 따르면, 아틸라는 레오 1세의 양쪽에 베드로와 바오로가 칼을 빼들고 함께 오는 것을 보고 퇴각하였다고 한다.

455년에는 반달족이 로마를 공격해 왔다. 이번에도 레오 1세는 용감하게 나아가 반달족의 왕 가이세리크와 대면하고 그와 담판을 벌였다. 비록 로마를 반달족의 약탈에서 구해내는 데까지 성공하지는 못했으나 최소한 로마를 파괴하고 시민들을 살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지를 가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레오 1세는 로마의 구원자로 부각됐고, 로마 시민들은 그에게 절대적인 신뢰와 충성을 보냈다. 대외적으로 교황은 사실상 로마의 수호자로 인식되었다. 이후 위신이 높아져가던 교황직은 단순한 종교적 영역을 초월하여 정치 영역에까지 그 힘이 서서히 미치기 시작하여, 훗날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 로마 교황이 서로마 황제를 대신하여 로마를 통치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그는 대교황으로 불리지요. 이런 일들로 하여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로마 감독의 기독교 수장권에 대한 칙령은 민중들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지요. 이렇게 하여 교회는 정치적 권력을 차지하였습니다. 이것은 야고보를 통하여 간음이라고 정죄되었지요. 약4:4입니다. 읽어보시지요.

[약4:4]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바로 이세벨의 교훈이 교회를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세벨의 교훈이나 니콜라당의 가르침이나 발람의 교훈은 동일한 것입니다.

2. 두아디라교회에 대하여 못다 한 이야기가 꽤나 됩니다. 더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계속하십시오.

답: 작년에 다니엘서 11장을 공부할 때 단11:21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궤홀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라고 한 것이 바로 교권의 등장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로마 감독이라는 직책이 정치적으로 비천한 것입니다. 그런데 피를 써서 나라의 위를 얻은 것입니다. 궤홀이라는 말이 감언이설을 뜻하는 말이니깐요. 레오 1세 같은 분은 교권 확립을 위해 끈질기게 노력했습니다. 결국 서로마가 망하자, 로마 황제의 자리를 교회 감독이 차지한 것입니다. 이세벨이 들어왔던 것이지요.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권력을 휘두르게 되었는데, 소위 하나님을 위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과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민초들을 꼼짝 못하게 다스렸지요. 그들의 주장에 반기를 들면 정말 철권으로 다스려 많은 사람을 이단이라는 이름으로 처형했습니

다. 이런 일 때문에 그를 침상에 던지고 자녀를 죽게하는 사건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울러 교회는 진리를 땅에 던지고 사람이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것을 따르지 않고 바른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마침내 개혁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개혁의 새벽별이 나타나고 마침내 루터라는 사람을 통하여 종교개혁이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권 통치가 약하여지고 마침내 사데 교회 시대로 넘어가게 된 것이지요.

3. 사데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답: 사데는 두아디라 남동쪽 약 48km 지점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옛날 리디아의 수도였습니다. 지금은 터키이지요. 이 도시는 상업적으로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염직 공업과 양털 염색, 사금이 유명하여서 사치와 부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무역의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군사적인 면에서는 성채가 남쪽을 제외하고 모두 압벽으로 되어 있어 난공불락의 성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안일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데 사람들은 이런 안일함으로 인해 두 번 정복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B.C. 549년에 고레스(Cyrus)의 공격으로 함락되었는데, 바블레이는 이때 사정을 자세히 적고 있다. 고레스가 침공하였을 때 리디아 왕은 사데를 보루로 삼고 포위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멀리 침입한 군대는 시일을 끌면 보급 문제로 퇴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고레스는 장병들에게 사데로 들어갈 방법을 찾는 자에게 특별상을 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히에뢰아데스라는 군사가 사데의 발포대를 감시하고 있었는데, 성위에서 보초를 서던 군인이 실수로 자기 투구를 성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닙니까. 히에뢰아데스가 유심히 보는 중에 그 군인이 성벽을 타고 성 아래 내려와서 투구를 주워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고레스의 군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고 그 밤에 일단의 군인들을 안내하여 그 성벽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가보니 포대에는 지키는 군인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리로 올라오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또 한 번은 218년 안티오커스(Antiochus)가 사데를 침략했을 때도 같은 방법으로 정복되었습니다. 안티오커스가 그의 라이벌 아캐우스를 공격할 때 아캐우스는 사데로 도망하였습니다. 안티오커스는 사데를 1년간 포위하고 싸웠으나 함락되지 않았는데, 라고라스라는 군인이 특공대를 이끌고 고레스의 군사들이 올라갔던 곳을 찾아 올라가는데 성공하고 점령하였습니다. 사데 시민들은 그 성의 견고성을 과신한 나머지 경계를 소홀히 하여 그런 천혜의 요새임에도 불구하고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사데는 시빌리(Cybele) 여신을 섬겼고 황제 숭배가 극심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시빌리 신전과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시빌리 신전에는 환관 제사장들이 있었고, 시빌리 예배는 음탕하였습니다. 사데 교회의 기원은 분명한 기록이 없습니다.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요한의 전도로 세워졌고 2세기에 이르러 변증가이며 주석가로 유명했던 멜리토(Melito)가 이 교회의 감독이 됨으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고 전해옵니다. 그러나 물질적 부요로 말미암아 내적인 피폐로 안일과 부도덕의 모습이 교회에까지 침투하였습니다. 사데의 현재 이름은 살리히리입니다.

4. 사데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곱 영광 일곱 별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했습니다. 설명해주시지요.

답: 예수님은 사데 교회에 자신을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은 성령을 가리키며, “일곱 별”은 교회를 보호하고 책임져야 하는 교회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은 이미 1장에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진”이라는 말은 성령께서도 예수님의 뜻대로 활동하신다는 것과 교회 지도자들도 예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하시는 주된 일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과,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런 칭호는 예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과 교회의 지도자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런 칭호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는 “죽었다”는 선언을 받은 사데 교회의 영적인 상태와 연관된 것으로 예수께서 자신의 권고를 받아들여 회개한다면 언제든지 죽은 사데 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으며,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수의 사데 교인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칭호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일곱 별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셨지요. 어쩌면 에베소 교회의 상태와 사데 교회의 상태가 닮은 데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교회도 부러울만한 상태로 출발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되었는데, 사데 교회도 개혁의 기쁨으로 시작하였는데, 죽게 된 상태에 이른 것이 아닙니까. 두 교회가 많이 닮았습니다. 사데라는 뜻은 기쁨의 찬송, 또는 남은 것, 남은 자의 도망이라고 합니다. 개혁의 기쁨이 있었던 것을 잘 표상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결국 남은 자만이 이기는 자가 된다는 암시가 있기도 한 것 같네요.

5. 예, 목사님, 정말 닮았네요. 그러니까 사데 교회의 사자들에게 예수께서 그런 칭호로 나타나신 것은 사데 교회의 영적 실상과 관련되어서 나타내신 칭호라는 말씀이군요.(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데 교회의 상태는 좀 심각해보입니다.

답: 그렇지요! 예수께서 책망하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계3:1)라고 지적하십니다. 사데 교회의 “행위”가 사데 교회의 과거 업적을 말하는지 아니면 과거의 명성만 주장한 채 현재는 생명을 상실한 모습을 말하는지 문장 상으로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절에서 “온전한 것이 없다”고 하신 말씀을 보면 현재 신앙생명이 없다고 하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데 교회는 일곱 교회 중 이단의 특별한 위협이나 외부의 핍박이 가장 적은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교적 문화나 주변 환경과 타협함으로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사데 교회가 생명력을 상실한 것을 지적하는 “죽었다”는 표현은 사데의 환경을 빌려서 묘사한 말이라고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데에서 약 11km 떨어진, 언덕처럼 보이는 수많은 묘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사데 교인들이 외형적 경건을 가졌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는데, 사데 교회가 신앙 이론은 듣는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잘 나타내면서도 실생활은 고백하는 신앙과 전혀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형태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대 교회의 교인들이 어쩌면 이 사데 현상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새벽 일찍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회에도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남의 집 담 너머 호박 줄기에 달린 호박을 아무런 생각 없이 따다가 주인에게 들켜서 주인이 나무라자 도리어 그러한 개썰 따는 것이 똥이 그리 대단해서 그렇게 나무랍니까 라고 항의하는 것이나, 신실한 권사님이 세 들어 사는 집 주인이 가짜 꿀을 만들어서 파는데 열심히 도와주면서 주인에게 잘 보여서 셋돈을 적게 내려고 하는 심정이나 다 사데 교회 현상입니다. 이런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지요. 엄청난 것들이 소위 교인들의 실생활에 숨어있을 것입니다. 사데 교회 현상이 만연한 것이 현대 교회의 실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예수께서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라고 현대 교회들에게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6. 그러나 목사님,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말씀을 보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될 것을 약속하셨으니까요.

답: 그렇지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2절) 사데 교회가 스스로 살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죽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자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자는 것이나 죽은 것이나 같은 상태이지요. 그러나 죽은 것은 깰 수 없지만, 자고 있다면 깰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실상은 죽었으나 깰 수 있는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희망적이기도 하지요. “일깨워”의 헬라어 시제는 계속적으로 경성하라는 뜻이 담긴 미완료 현재 능동 분사입니다. 이는 사데가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방비에 소홀해서 두 번 씩이나 점령을 당했던 경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경고가 되었겠지요. 예수께서는 사데 교회에 “일깨워”라는 권면을 하심으로 회개할 것을 촉구함과(3절) 동시에 사데 교회가 비록 죽음 직전에 있으나 생명력을 상실한 것은 아니라고 넉넉히 알려주셨습니다. “죽게 된 것을”이라는 헬라어는 아직도 사데 교회가 부분적으로는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굳게 하라”고 말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영적 생명을 활기차게 회복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7. 참 자비로우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도 참고 권고해서 구원을 잃지 않게 하시려는 사랑이 깊이 배어 있는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그래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지겠지요?

답: 그렇지요. 3절을 보면 그런 경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는 세 가지 권고가 있군요. (1) 생각하고. 이 헬라어 “므네 모뉴에”는 “염두에 두다”라는 의미인데, 현재 명령형으로 “항상 상태를 되돌아보라”는 뜻입니다. (2) “지키어”입니다. 이 헬라어 “테레이” 역시 “유지하다”는 의미인데 이미 받았고 들었던 복음을 항상 굳게 붙잡아 잘 유지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3) 회개하라는 말씀은 자주하신 말씀인데, 여기 헬라어는 부정 과거 능동태 명령형으로 단번에 결정적으로 죄에서 돌이키라는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것은 잘 유지해야 하고 그릇된 것은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의 시제가 의미하는 것을 이제 말씀 드렸는데, 이렇게 시급한 돌이킴에 대한 명령은 임박한 종말에 대한 심판을 내다보며 죄로 부패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가르칩니다. 이런 권면의 말씀도 에베소 교회의 권면과 비슷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말씀했습니다만, 에베소 교회는 사도시대 교회로서 자랑할 만하고 첫 사랑이 뜨거웠던 교회인데, 이단 분별하느라고 첫 사랑을 잃었잖습니까. 그래서 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했는데, 사데 교회는 개혁의 기쁨에 들떠서 개혁을 지속시키지 못하고 이름만 개혁 교회이고 내용은 거의 죽었다고 할 정도로 침체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를 깨닫고 속히 회개하라는 사랑의 권고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재림을 영광중에서 맞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에베소는 촛대를 옮긴다고 하셨

잡아요. 결과는 마찬가지로이요. “만일 일까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마24장에서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이지요. 바울도 같은 사상을 살전 5:2에서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회개하라고 권면했는데도 계속적으로 죄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생명력을 상실한다면 마치 도둑이 밤에 알지 못하는 때에 오는 것과 같이 예수께서도 예기치 못할 때에 오시므로 너희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면 회개하는 자들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때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요. 이것은 바울이 살전5:4~6에서 말한 것과 통합합니다. 한 번 읽어봅시다.

[살전5:4~6]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5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6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 어두움에 있지 아니한 성도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하셨지요. 이 말은 재림하시는 날과 시를 알게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항상 깨어 있기 때문에 재림하실 때에 영광중에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사데 교회도 이런 자리에 들어가라고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8. 어느 교회나 어느 시대 교회거나 다 교회 안에는 깨어있는 무리와 그렇지 못한 무리가 있겠지요. 그런데 사데 교회에는 그 현상이 아주 뚜렷한 것 같습니다.

답: 그렇지요! 당시 사데 교회에도 그랬겠지만, 사데 교회 시대인 개혁시대에 더욱 그랬습니다. 개혁의 새벽별인 위클리프 시대부터 얀 허스나 제롬을 거치고 루터 시대에 와서 개혁운동이 왕성했으며 또 한 때 두 때 반 때 기간이 끝나면서 교권이 몰락하는 것을 보고 개혁교회는 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그들이 전체적으로 안일에 빠지는 길로 접어든 것이지요. 천주교가 가르친 고행은 구원에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겠다.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삶으로 이어지는 산 신앙생활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그러나 사데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계3:4)고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웨슬리나, 존 녹스나, 기타 개혁의 정신을 높이 쳐든 믿음의 용사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 알고 항상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생활로 드러내는 종들이었지요. 그들의 지도를 받는 사람들도 옷을 더럽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9. 목사님,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말씀의 구체적인 상태가 어떤 것입니까?

답: 성경에서 옷은 중요한 사실을 나타냅니다. 흔히 흰 옷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옷이라고 말합니다. 사61:10절에는 의의 겹옷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을 사단과 세상이 항상 더럽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옷을 항상 그리스도의 속죄하는 보혈에 빨아야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믿음의 삶입니다. 계7:13,14을 봅시다.

[계7:13,14]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옷을 입는다는 말은 항상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를 씻는 삶을 끊이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계19:8에 있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성도들의 도덕적으로 의로운 행위를 한 것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7:13,14이나 22:14의 말씀을 보면 보혈로 씻는 것이 옳은 행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데 교회에 이렇게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을 믿음으로 흰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끝까지 그것을 지킨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혁자들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지요. 즉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닐 것이며 생명책에 이름이 분명할 것입니다. 구원의 보증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약속입니까.

10. 5절에 생명책에 그 이름을 흐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답: 예, 이 말씀을 보면 그렇지요. 이 외에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69:28에는 “저 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라고 했습니다. 모세도 바울도 자기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에서 도말되는 것으로 민족이 구원을 얻는다면 그렇게 하라고 했지요. 생명책이라는 이름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왜 생명책일까요? 그것은 생명 있는 자의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생명,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보증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되겠지요. 마치 사망신고를 하면 호적에서 그 이름에 붉은 줄을 치듯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은 그 이름이 도말될 것입니다. 사데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도말된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핍박의 때에나 평화의 때에는 언제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고 세상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부인한 일이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안다고 인정하십니다. 그들은 구원이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사데 교회의 상급입니다. 성경 한 구절을 볼까요.

[눅9:26]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마10:32,33]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33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 약속은 구원에 대한 확실한 약속인데, 삼중적으로 확인하신 것입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흐리지 않고, 흰옷을 입을 것이며,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사데 교회의 흰옷 입은 자와 같게 하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